인문연구 제83호
Journal of the Humanities
2018. Vol. 83, No. 1, pp.1~48
http://dx.doi.org/10.21211/JHUM.83.1

최초의 노동장편 소설 안재성의 『파업』에 드러나는 '학출'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

오현석*

〈차 례〉

1. 들어가며
2. 1980년대 학출 노동자 출현의 안팎 조건
  1) 1980년대 지식인의 부채의식과 학출의 확산
  2) 1980년대 재생산된 폭력의 시대와 학출의 확산
3. 진실성의 문제: 불온함과 타자성
  1) 불온함: 이념 논쟁의 재생산
  2) 타자성: 노동자와는 다른 학출 노동자
4. 순결성의 문제: 학출의 자기검열과 자아비판
  1) 순결하지 않은 노동자
  2) 순결한 노동자 되기: 학출 자기 부정과 비판
5. 나가며

【국문초록】

본 논문은 학출이 1980년대 초반 노동투쟁의 한 축을 맡았다가 1980년대 후반 사라지게 된 시대적 현상에 대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학출의 내·외부를 고찰했다. 학출은 당대 노동 투쟁 현장에서 선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도적으로 노동자 교육, 운동 조직 등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안재성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업』을 집필했다. 그래서 이 소설에는 학출의 역할과 한계, 현장에서의 갈등 문제 등 학출을 둘러싼 목소리를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즉, 『파업』은 학출 작가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1980년대 학출의 활동과 한계를 뒤돌아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파업』에 등장하는 학출은 내·외적으로 많은 제약 속에서 있었다. 지배 권력은 학출을 불순분자, 위장취업자로 몰았고 노동자들은 지식인인 학출의 노동자 되기를 불편한 시선으로 보았다. 이처럼 타자화된 학출은 이에 대응하여 존재의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 불온함과 타자성의 검증을 극복해야 했다.

또한 지식인 노동자인 학출이 가진 존재론적 한계는 순결성의 문제를 낳았다. 1980년대 후반 선진노동자와 노동자 출신 노조 지도부 양성은 학출의 입지를 약화시켰다. 이런 과정에서 학출은 노동운동의 진정성을 증명하기 위해 '순결한 노동자 되기'를 시도했다. 자기 부정, 비판을 통해 지식인 이미지를 탈피하려했지만 여전히 그들에 대한 시선은 지식인 노동자에 머물러 있었다. 학출은 1980년대 후반 6월 항쟁을 기점으로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이처럼 본고는 기존 노동운동사에서 선도적 활동가라고 평가받는 학출의 이중성을 『파업』을 통해 분석했다. 소설 속 학출은 다양한 방식으로 현실의 제약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했음을 확인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학출과 같은 타자화된 우리를 대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파업』은 '현재, 여기'에 유효하게 살아있는 학출을 호출하고 있다.

주제어 : 노동문학, 노동소설, 안재성, 『파업』, 노동운동, 학생운동, 학출, 노동자, 자본주의, 광주민주항쟁, 전태일, 1980년대, 자본가, 지식인, 대학생, 위장취업, 투쟁, 사회주의

1. 들어가며

1980년대는 1970년대 민족, 민중문학론이 다져놓은 문학의 장을 넓게 펼쳐놓고 문학 양식과 문학 주체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문학장(場) 내 투쟁이 활발하게 벌어졌던 시대였다. 민중, 특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분출된 '보통사람'의 창작물들이 전문 문사들의 "자폐적인 문학범주"[1]에 경종을 울리며 '노동문학'으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수많은 문학적 논쟁을 겪게 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까지 쏟아져 나온 노동수기, 노동르포들을 기저에 두고 노동문학은 1980년대 후반 본격적으로 소위 기성문단에서 '문학양식'으로 인정해주는 시, 소설과 같은 제도권 문학의 대표 양식[2] 창작으로까지 나아갔다. 이처럼 노동문학은 "전위적 임무를 맡아 기존 문학장(場)을 확대하고 문학의 본질에 접근하는 가능성"[3]을 보여주었다. 이 시기 노동문학이 문학으로 진입한 것은 리얼리즘과 민중문학에 근거하여 노동자 문사들이 노동자들의 "집단적 신명을 사실적으로 구현"[4]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

1) 백진기,「수기와 르포의 운동역량을 위한 문제 제기」,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의 자유와 실천을 위하여』제1집, 이삭, 1985, p. 116.

2) 1970년대 말부터 노동자 수기와 르포의 폭발적 증가에 따라 기성 문단에서는 노동자들의 노동문학의 '문학성'을 문제 시 하는 경향이 있었다. 하지만 장르의 차이가 문학성을 차이를 드러낸다는 논리는 기성문단의 폐쇄성만 드러내며 노동문학의 문학적 수용에 대한 논란을 가져왔다. 1980년대 노동문학은 이런 논란조차 뛰어 넘어 문학 양식의 확대를 통해서 노동문학의 가치를 인정받게 되었다.

3) 오현석,「응축된 침묵의 분출에 무관심한 그들 - 노동문학은 누구의 것인가?」,『1980년대를 읽다: 노동과 표현의 문제』, 해석과판단 제8집, 글누림, 2015, p. 153.

4) 김지하,「민중문학의 형식문제」, 자유실천문인협의회,『문학의 자유와 실천을 위하여』제3집, 이삭, 1985, p. 12.

랑시에르는 세계는 “감성의 분할”[5]을 통해서 인식되며 집단 감성의 공유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즉, 감성의 분할은 의식의 분화와 공유가 동시에 작용하는 반응이다. 집단 감성은 공동이 세계를 인식하는 의식에서 나오며 이것은 세계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 의해서 변별적으로 감각되어진다. 문학의 본질이자 역할이 집단의 감성을 세계의 주체들과 함께 나누는 것임을 상기할 때 노동문학의 성립은 ‘감성의 분할’을 통해서 주체들이 의식을 공유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결국 기존 문학세계를 공고히 방어하던 문학권력이 새롭게 밀려드는 민중과 노동자들의 감성을 수용하지 못하고 그에 전복 또는 변형을 겪게 되면서 분리와 공유현상이 나타났다.

노동문학은 이와 같이 공유되는 노동자들의 감성을 바탕으로 세계에 개입해서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즉, 노동문학은 노동에 대한 집단 감성의 공유를 도모하는 매개체이며, 이를 위해서 그 주체인 노동자가 노동문학의 중심에 서야하는 당위성을 획득했다. 랑시에르에 따르면 문학은 “데모스, 공동체, 평등으로 정치와 맞닿아 있”[6]다. 문학 활동은 주체가 공동체를 통해서 ‘평등한 존재’로 글쓰기 활동을 하는 것이며, 누구나 작가나 독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집단 감성의 공유는 노동문학의 영역에서 만큼은 노동자 문사들의 역할이 대두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서 1980년대 노동자 문학은 노동 체험과 의식의 일 치, 노동문학과 감성의 공유를 통해서 발전했다. 삶과 경험과 문학의 일치를 지향하던 노동문학의 대상과 주체는 당연히 현장 노동자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와 같은 현장문학론은 당대 전문문사와 지식인들에게는 아킬레스건과 같은 약점이었다. 현실

5) 자크 랑시에르,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p. 11. ‘감성의 분할’에 대한 자세한 정의는 이 책을 참고할 것.
6) 자크 랑시에르, 위의 책, p. 313.

체험과 의식의 간극을 너무도 잘 아는 지식인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극복하거나 외면하는 등 두 가지 방식으로 현실을 맞아들였다.

학출 노동자들은 자신들을 노동자계급과 더욱 밀착시키고 자신이 지식인임을 부정하고 비판함으로써 현실과의 간극을 줄이려고 했다.[7] 이렇게 1980년대 학출의 전면 등장은 1980년대 후반 노동문학 확대의 모티브가 된다. 노동문학은 가장 리얼리즘적인 문학으로 노동문학의 문예미학적 핵심은 현장성, 목적의식성, 체험성 등이 확보되는 것[8]이었다. 실제 삶과 노동문학에 그려지는 학출 노동자들은 이들 요건을 충족시킴과 동시에 또 배치되는 이중적 존재였기 때문에 노동문학에서 문제화하기에 충분했다.

대표적으로 최초의 장편 노동소설인 안재성의『파업』[9]은 1987년 대투쟁 이후 1980년대 노동 현장에서 학출의 역할과 한계, 갈등 문제를 그대로 그려내고 있다. 이것은 안재성[10]이라는 작가가 학출로서 노동 현장을 직접 체험을 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 소설은 학출이 노동현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망라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까지 활발하던 '학출'의 등장은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을 기점으로 급속히 노동 현장에서 존재감이 사라지게 된다.

---

7) 학출노동자의 소멸에 대한 과정은 오한나,「198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과 학생출신노동자」, 서울대 석사논문, 2006, p. 57을 참고할 것.

8) 배하은,「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 서울대 박사논문, 2017, p. 206.

9) 안재성,『제2회 전태일문학상 수상작품집1 파업』, 세계, 1989.

10) 장수익,「1980~90년대 노동소설 연구」, 한국문학회,『한국문학논총』제75집, 2017, p. 11.『파업』의 저자 약력에도 작가 안재성은 강원대 제적 후 구로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안재성,「저자약력」,『제2회 전태일문학상 수상작품집1 파업』, 세계, 1989.

작품이 발표된 1989년은 1987년 대투쟁이 지나고 1980년대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안재성이라는 작가가 학출 노동자라는 존재에 대해 스스로 추수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파업」은 '노동' 문학으로서, 노동 '문학'으로서 두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노동문학에서 학출은 지식인과 노동자라는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현실과 픽션(문학)의 공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형상화되었다. 불온사상을 가진 위장취업자로 지배체제에서 배제된 타자이기도 하고 노동자를 이끌어 가는 전위로서 민주화의 주체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다. 또 노동자로 인정받기도 했지만 노동자가 아닌 노동자로서 배타적 존재이기도 했다.

본 연구는 안재성의 「파업」에서 당시 학출 노동자들이 어떻게 문학적 형상화가 되는지 분석하려고 한다. 이중적 존재인 학출의 실제 삶과 소설 속 형상화된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2장에서는 학출 노동자들이 출현하게 된 그들 내부와 외부 사회적 환경을 분석하겠다. 3장에서는 지식인과 노동자라는 이중적 존재인 학출이 타자의 인식에 있어서도 이중적 존재일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주목하여 노동소설에서 학출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의 의미를 분석하겠다. 즉, 그들이 공장으로 간 이유를 진실성에 초점을 맞추어 지배자들의 관점인 위장취업자, 노동자들이 느끼는 타자로서의 이질감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4장에서는 학출이 '학출' 노동자가 아닌 학출 '노동자'가 되기 위해 지식인이라는 수식을 버리고 자기비판과 자기 검열을 통해서 '노동자의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하는 문제를 다루겠다. 즉, 본 논문은 안재성의 『파업』에서 학출 노동자의 문학적 형상화를 분석하여 현실에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기도 한 학출이라는 이중적 존재가 노동문학에서 어떠한 역할로 다루어지는지 주목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2. 1980년대 학출 노동자 출현의 안팎 조건

전두환 정권 당시 대학 정원 자율화 조치를 통해서 이전 7-8% 대의 대학 진학률이 30%대로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대학생은 우리사회의 고등 지식인으로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름이자 계층이었다. 즉, 1980년대에도 대학생은 미래를 보장 받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었다. 이렇게 사회의 기득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받은 대학생들이 자진해서 공장으로 달려간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1980년대 학출이라고 불리던 대학생 노동자는 사실 그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1960-70년대 학생운동과 노동운동은 직접적인 결합의 고리가 약한 상황이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직접적인 노동운동 현장으로 개입하는 경우는 적었다. 당시의 학생들은 4·19혁명 이후 정치, 민주운동 등 적극적인 사회 참여적 활동을 하여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사회 확립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를 노동문제와 결부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1980년대 학출을 둘러싼 노동 현장 안팎의 여러 상황들이 학출을 사회 전면으로 소환했다.

1) 1980년대 지식인의 부채(負債)의식[11]과 학출의 확산

19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학출노동자들이 노동문제의 전면에 나서서 노동 운동을 확산시킨 이유는 지성인 대학생들의 지적 좌

11) 오하나,『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이매진, 2010, pp. 92-93. 오하나는 당시 대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에 대한 정체감을 '나약한 지식인'으로 보았다. 독재와 유신에 항거하지 못하고 웅크리고 있었던 과거와 현재의 지식인에 대한 반성이 부채의식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절과 그동안 그들이 외면해 왔던 민중들의 처참한 현실에 대한 지식인의 부채의식에 있다. 이를 추동한 두 사건이 1970년 전태일의 분신사건과 1980년 광주이다.[12] 이 두 사건 이전까지 대학생들에게 노동자와 민중은 타자화된 단어로서 그들은 민중들의 삶에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하지만 전태일 분신사건을 기점으로 학생들은 노동운동을 "민중 억압적 정권의 성격에 대해 반독재투쟁"[13]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광주민중항쟁은 "민주 민중 대 반민주 국가권력 간 대립과 민중세력의 패배"[14]를 통해서 학생들이 노동운동 표면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즉, 1980년 5월 광주를 통해서 대학생들은 그들이 그동안 독재정권에 맞서서 민주사회, 자유사회를 쟁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지적으로 투쟁했던 노력들이 현실사회에서 또다시 정치세력과 군부에 의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다. 또한 그 지점에서 광주를 통해 본 민중, 전태일을 통해서 본 노동자들의 힘을 확인했다. 대학생들은 우리사회의 지식인임을 자처하며 사회와 제도를 논해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변화시키지 못한 자신들의 자화상을 부끄러워하며 민중들에 대한 부채의식을 느끼게 된다.[15] 학생-노동자 양

12)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pp. 158-160.;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 1 : 학출활동가와 변혁운동』, 봄날의박씨, 2015, pp. 26-32. 구해근은 학생운동가들의 노동문제 개입을 1970년대 초 전태일의 분신 사건을 기점으로 하고 있다. 유경순은 일제강점기 사회주의 지식인들의 노동운동사를 분석했는데 특히 학생 출신 현장 노동운동은 극소수였지만 1960년대부터 시작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의 노동현장 진출을 구해근보다 앞선 시기로 보고 있다. 하지만 두 연구자 모두 공통적으로 학출의 등장에는 전태일 분신 사건과 광주민중항쟁을 들고 있다. 전태일 분신 사건은 그동안 학생 운동에서 민중들의 삶과 노동을 등한시 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노동 운동을 독재에 맞서는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13) 유경순, 위의 책, p. 92.

14) 유경순, 위의 책, pp. 164-165.

15) 박종운, 「학생운동의 변혁운동으로서의 정립」, 『월간 사회와 사상 80년대

측은 오랜 기간 독재와 부당한 노동환경으로 고통 받고 또다시 그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사회 변혁을 위해서는 이론이나 현장만으로는 될 수 없고, 노동운동과 민주정권 건설[16]이 같은 곳을 지향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의식의 성장을 통해서 대학생들은 이론만으로는 사회구조를 변혁시킬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적극적인 투쟁을 위해서 노동현장으로 투신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초 마르크스주의의 유입과 조직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학출들은 목적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그들은 노동현장에서 소모임을 결성하여 노동자들의 사회의식을 기르고 정치학습을 통해서 노동현실에 대한 노동자들의 저항 의식을 고양시켰다. 이를 바탕으로 학출들은 노조결성, 투쟁, 파업 등 노동현장에서 노동조건 개선 및 민주화를 위해 쟁취할 수 있는 일련의 활동을 했다. 안재성의『파업』은 학출이 노동현장에 들어가서 노동자들이 그들의 권리를 인식하고 회사로부터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지 안내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한 과정을 그려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서사[17]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박규준[18]은 이런 점들

사회운동논쟁』, 한길사, 1989, p. 34. 10·26 이후 독재의 종말을 염원하던 민중들은 12·12사태를 경계하며 신군부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했다. 그동안 독재로 인해서 억눌렸던 민주사회에 대한 꿈을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을 통해서 표출하기 시작했다. 5·18광주항쟁이 있기 3일 전 1980년 5월 15일 대규모 학생시위대는 신군부에 반대하는 시위를 이어가지 못하고 학습된 공포와 조직의 부재로 인해서 서울역에서 해산해 버린다. 일명 '서울역 회군'은 지식인 및 대학생들의 수치심과 의무감을 동시에 드러낸 사건이다.

16) 채구묵,「1980년대 민주노동운동에서 학생 출신 지식인의 역할」,『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7, pp. 387-388.

17) 박규준,「한국 현대 노동소설 연구 - 이데올로기와 성장서사 -」, 대구대 박사논문, 2008.

18) 박규준,「안재성의 파업 연구 -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인물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회,『한민족어문학』제66권, 2014, pp.

이 오히려 작가의 의식과 등장인물의 의식이 혼재되고 작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내용적 총체성만 남고 표현적 총체성은 상실되어 내포적 총체성이 결핍"[19]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안재성이라는 작가의 소설 속 개입은 당시 학출의 시선을 대변하고 있고 볼 수 있다. 분명한 목적성을 지닌 『파업』은 지향점이 노동문학으로 향해 있다. 작가의 개입은 그런 측면에서 서사성을 해치는 요소라기보다는 당대 상황을 엄밀하게 제시해 주는 역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서술자의 서술이 문학이나 소설미적 평가 잣대로는 결점이지만, 『파업』의 서술자는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서술의 주체로서 등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대상황의 안내자 역할로 볼 수 있다. 작가는 자신을 포함하여 당대 사회의 지식인들 속에 내재한 민중과 시대에 대한 공통적 부채의식과 부끄러움을 서술자의 입과 학출 등장인물의 행동을 통해서 제시한 것이다.

학출 노동자의 등장은 민중에 대한 지식인의 부채의식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안재성의 『파업』에는 공장으로 오기 이전 노선과 이념의 차이 때문에 갈등과 반목하는 대학생들의 학생운동 과정이 드러난다. 다른 노동소설에서 학출이 노동자들을 이끄는 선구자적 입장을 고수한 것과는 달리, 『파업』은 학출들이 노선 차이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즉, 노동운동 현장에서 실제 있었던 여러 사건들을 자기고백과 반성을 통해서 사실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파업』의 홍기와 정기준은 학생운동 이론과 사상적 지향, 명확한 목적성을 품고 현장에 뛰어든 서로 다른 노선의 학출노동자들이다. 『파업』은 단순히 뛰어난 학출 노동운동가로서의 모습이 아닌 한계와 서로 간의 갈등을 노출함으로써 노동문학이 지향하는 현장

499-530.

19) 박규준, 위의 논문, 2014, pp. 507-508.

성을 한층 심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 학생출신 활동가 중에는 알량한 학생운동의 전력과 혁명이론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와 자신의 이론과 다르거나 조직적으로 다른 낌새만 보이면 온갖 비판을 퍼부어 대고 몇몇이 분파를 만들어 다른 활동가를 타도하기에 대부분의 시간을 바치면서 혁명가라 자칭하는 자가 많았다. 그들은 진정으로 동지를 아끼고 발전시키려는 자세는 가지지 않고 자신이 주장하는 논리와 자신의 운동가적 지위를 보호해 줄 세력에 따라 이합집산을 거듭했다. 그런 모습은 겉으로는 열성적으로 보여도 진정으로 노동자에 대해, 동지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과는 엄격히 달랐다. (『파업』, p. 140)[20]

위 인용문은 『파업』에 등장하는 학출 중 정기준이 홍기를 만나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생각한 내용이다. 홍기와 정기준은 서로 다른 학생운동 방향성으로 인해서 노조설립과 투쟁의 방법에 대해 대립과 논쟁을 하면서 현장에 적응해 간다. 현장 경험이 있는 작가는 학출이 완벽하게 준비된 이론가가 아니라 노동자들과 함께 현장을 바꿔나가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학출들 간의 갈등이나 시행착오도 소설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려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정기준 스스로 학출의 한계와 민중성의 결여를 지적하고 비판, 반성한다. 학출들의 최종 목표는 대학에서 학습한 이론을 바탕으로 현장에 적용하고 궁극적으로는 독재정권의 타파와 민주사회, 노동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학출 노동자들은 그들 내부에 각 노선의 충돌과 민중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지식인으로써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가지게 되었다. 자신이 지향한 노선이 타파되면 그것을 지지한 자신의 현장 활동도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학출들은 서로를

---

20) 본 논문에서 『파업』에 대한 인용은 다음과 같이 제목과 쪽수만 밝히는 것으로 표기하겠다. (『파업』, p. -)

경계하고 배타적인 관계[21]가 되었다.

학출 노동자의 등장은 실제 현실에서 보여주지 못한 또 따른 시 대 논리가 내포되어 있다. 다수의 학출은 "민중에 대한 깊은 애정이나 사회변혁에 대한 이해보다는 당시 대학 학생운동권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독재정권, 광주, 반미 등의 적으로 규정하고 투쟁에 참여"[22]한 경우도 많았다. 그들은 같은 학교, 서클, 소모임을 통해서 정치학습, 이념 습득을 한 후 1980년대 초반 신군부의 위장취업 탄압, 유신 등으로 인해서 적극적 연대로 나아가지 못한 채 현장에 투입되었다. 학출에 내재된 배타성은 이런 점에 기인하고 있다.

> 현장에 갈 생각은 언제 하신 거예요?: 그때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삶의 코스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데모를 하고 감옥에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장을 간다'는 게 거의 공식코스처럼 있었잖아요? 우린 대부분 다 그랬는데. (유경순 2, p. 422)[23]
>
> 이전팀 하면서 현장 가는 거나 노동운동을 하는 목적을 어떻게 설정했어요?: 한마디로 '자본주의 철폐,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목적성을 분명히 가졌어요. 더구나 당시의 한국사회가 군부독재 치하였기 때문에 더욱 그럴 수 있었던 거죠. 당시 제가 가졌던 의식성의 깊이나 넓이하고는 무관하게 보통 현장으로 이전하는 대부분의 학생운동 출신들이

---

21)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 pp. 278-288. 학출들의 존재 전략은 기본적으로 독재정권의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활동이 들러나지 않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소규모 그룹 또는 개인 활동을 하며 이론교육, 현장투입이 된다. NL-CA의 대립, NL-PD의 대립 등 학생운동 각각의 분파는 상대의 이론을 타파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동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 집단이 살아남는 길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타적 경향이 소설에도 이어지게 된다.

22)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2 : 학출활동가들의 삶 이야기』, 봄날의박씨, 2015, pp. 262-263.

23) 유경순, 위의 책에서 인용은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유경순 2, p. -)

가졌던 보편적인 생각을 저도 당연하게 가졌던 거죠. (유경순 2, p. 502)

학출의 현장 투입은 소설 속 현장에서 투쟁 전문가로 묘사되는 학출의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현장 참여가 어떤 당위적 목적과 확고한 개인의 의지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시대적 조류와 당시 대학의 학내 운동권 분위기 등이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운동권에게 현장은 지식인으로서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줄이고 실천적 지성인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공식루트"였던 셈이다. 학출들의 "보편적인 생각"은 그들이 학습한 이론과 현장의 괴리를 직접 확인하고 그 간극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했고 그들의 최종 목표는 현실 사회 개혁이었다.

> 공장 갈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죠?: 아, 그거는 내가 그동안에 선후배들이나 동료들하고 운동에 대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그때는 공장가는 거에 대한 얘기까지는 안 나왔고, 그 나이에 '사회주의 혁명하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그때는 '유신이라고 하는 아주 강대하지만 무너뜨려야할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시급히, 아주 빨리, 저걸 깨부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유경순 2, p. 371)

학출들에게 1980년 잔인한 봄의 경험은 지식인의 트라우마로 새겨졌다. 그들에게 타파해야 할 적은 군사정권과 폭력적 현실이었다. 체제의 변혁을 위해서 눈앞에서 그들을 옥죄고 있는 유신 철폐가 우선 해결 대상이라 판단하고 학출들은 위로부터의 혁명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민중 혁명을 위해서 노동 현장으로 가게 되었다. 현장 노동자들의 의식 개혁과 노동권 쟁취를 통해서 정권에 대항하고 연대할 세력을 구축하여 노동운동을 진행해 가는 것이 공장으로 간 학출들의 임무였다. 그러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이 자기 처지와 위치를 자각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했

다. 학출들은 그동안 지식인들이 외면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노동자들을 교화시켜 나갔다. 노동자들은 소모임과 정치학습을 통해서 노동투쟁의 목적, 방법, 방향 등을 익히고 노조를 결성하여 자본가와 제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렀다.

이처럼 1980년대 학출의 등장은 내부적으로 대학생 지식인들의 부채의식이 큰 바탕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폭압적인 현실을 걷어내지 못하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지식인의 자화상에 대학생들은 스스로를 자조하며 자신들보다 더한 억압 속에서 살아온 노동자들의 삶을 껴안아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게 되었다. 소설 속 학출은 명확한 목적의식과 추진력을 발휘하는 반면 실제 현실에서 학출들은 현장 참여가 시대적 조류를 따른 것임을 인터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냈다. 하지만 소설과 현실 모두 노동자와 민중에 대한 부채의식이 학출들의 행동을 추동시켰음이 드러난다.

2) 1980년대 재생산된 폭력의 시대와 학출의 확산

전태일의 투신은 청계피복노조를 대표로 하는 대규모 노조 결성의 시발점, 노-학 연대의 필요성 대두, 집단적 파업 투쟁 등 노동문제를 여러 분야에서 활동을 진전시켰다. 특히 학생과 노동자들은 1970년대 야학을 매개로 해서 활발하게 교류를 했다. 독재정권 하에서도 이런 다양한 활동이 씨앗이 되어 퍼지면서 노동자들의 의식과 권익이 조금씩 향상되기 시작했다.

자발적 노동의식의 성장과 함께 1979년 10·26사건으로 독재정권이 붕괴되면서 1979년 10월부터 1980년 4월까지 노조결성과 활동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하지만 12·12사태로 권력을 잡은 신군부가 1980년 5월 이후 본격적으로 집권하여 노동관계법을 개

정하면서 노조 숫자는 절반으로 줄어들었다.[24] 노동법의 개정은 노조 설립을 어렵게 하고 제3자 개입을 금지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연대와 투쟁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독재정권의 붕괴 이후 자유를 기대했던 지식인들은 신군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5·18광주민주화 운동을 폭압적 진압한 현실을 암담하게 인식했다. 20년간 독재정권 아래서 순응하며 살아왔던 지식인들은 1980년대 재생산된 폭력의 시대를 타파할 대안을 모색했다. 살벌한 국가 폭력에 희생된 5월의 광주를 눈앞에서 목도한 지식인들은 이전의 소극적 태도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직감한다. 결국 학출들은 불법을 감수하고 공장을 선택했다. 그들은 현장에서 학습-투쟁-노조결성-구사대와 충돌-파업-노조 쟁취 등 일련의 현장 노동운동 흐름을 이끌어가는 주체 세력이 되었다.

대한민국 사회는 "예외상태"[25]를 수없이 경험했다. 우리민족은 해방기, 전쟁기, 독재정권 시기, 1980년 5월 광주 등 시간과 장소를 망라하고 법의 판단이 중지되는 현장에 있었다. 그 상처가 지금도 여전히 오롯하게 남아서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예외 상태는 법의 소멸이 아니라 초법 권력의 등장하여 권력의 안과 밖을 구분 짓는다. 예외 상태의 가장자리에 몰린 "벌거벗은 존재"[26]들은 자기 주체를 조건 없이 내맡김으로써 가장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내쫓긴 자"[27]가 되어 위태로

---

24) 김원 외 편,『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p. 74.

25) 조르조 아감벤, 김항 옮김,『예외상태』, 새물결, 2009.

26)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27)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p. 140. 랑시에르는 내쫓긴 자들이 프롤레타리아, 즉, 노동자들에게 어울리는 고유의 이름이라 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지칭이 개인이나 한 집단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외 상태는 이처럼 초법적 칼로 '누구나'를 가장자리로 몰아붙일 수 있다.

운 가장자리에서 머무르며 권력의 심판을 기다려야 했다. 예외 상태에 놓은 이들은 정치적 주체로서 주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놓인다. 하지만 학출은 특이하게도 스스로 정치의 가장자리를 선택해서 위태로운 지점에 놓인 존재들이다.

1980년대에 우리사회에서 다시 재생된 예외상태의 폭력에 대해 학출들은 단호하게 현장의 노동자들과 함께 하기를 선택했다. 반복되는 권력의 폭압에 대해 학출들은 더 이상 순응을 통해 정치적 주체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엘리트로서 중류층 이상으로 살 수 있는 가능태를 가진 존재들이었다. 그래서 권력은 이들에게 전향해서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지만 대부분의 학출들은 보호받지 못할 바깥을 선택했다. 권력은 이들을 노동자와 분리하여 가장자리로 몰아서 '위장 취업자'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 가장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중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닌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그들은 지적, 육체적 투쟁의 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 전투는 시작되었다. 금세기 최대의 전쟁인 계급투쟁의 한 전투가 여기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대영의 전투는 그 거대한 전쟁의 극히 일부분이었고 노동계급의 전력은 대기업과 자본주의정권이라는 거대한 적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미미하였다. 따라서 대영의 전투는 전면접이라기보다는 하나의 유격전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그러나 유격전에 참가한 이들 노동자들 역시 전면전에 참가한 병사들과 마찬가지로 필사의 전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인간 개개인의 의지를 떠나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주의의 가혹함이 기다리고 있었다. (『파업』, p. 193)

노동 투쟁은 계급적 대립으로 비유된다. 각 사업장의 노동 투쟁은 국지적 전투로서 거대한 자본주의의 폭압에 맞서기 위해서 주체적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작가가 당시 대영철강의 상황을 국지

전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현실을 전복시키거나 가장자리에서 경계를 허물고 중심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면전에 나서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와 기업을 상대할 확고한 의식과 행동이 필요하지만 당시 노동자와 학출들은 아직 그 정도 내적 역량이 갖추지 못했다.

학출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로도 경계인을 의미하고 있다. 그들은 노동자의 경계로 포섭되거나 지식인의 부류로 분류되기에 이질적 존재로 양쪽 모두 학출의 자리는 마련되지 못했다. 즉, 노출(노동자출신 활동가)과 구분되는 학출이라는 지칭어가 있었고 위장취업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학출은 사회 체제에 반하는 존재로 그려진다.[28] 즉, 학출은 이데올로기와 출신 성분 등 이중, 삼중의 프레임을 통해서 예외 상태로 내몰렸다. 취업을 위장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현장으로 왔다는 의미로 굴레 씌워진 학출들은 제3자 개입 금지라는 노동법 개정으로 노동자로서 지위는 얻을 수 없었다. 또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운동권에서 학출 활동가 중 일부의 경우 노동운동의 목적이 자기 출세에 맞추어졌다는 논쟁이 발생했다. 이처럼 학출을 감싸는 이미지들은 그들을 둘러싼 사회 제도와 환경이 그들을 사회 가장자리로 드러나게 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적인 문학적 형상화 양상은 다음 장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학출의 현장 진출이 노조결성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을 조직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성과이다. 이렇게 학출들이 조직 구성에 심혈을 기울인 이유는 당대 사회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공권력의 폭압을 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뿐더러 전태일의 분신을 기점으로 노동 투사들의 잇따른 희생, 5

28) 박규준, 앞의 논문, 2008, pp. 32-33. 『파업』에서는 학출을 감싸는 이중적 억압 때문에 이데올로기를 활용하여 노동자와 학출을 분리하는 방식이 그려졌다.

월 광주에서 드러난 민중의 희생 등 노동운동은 생명을 담보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학출들은 이런 폭력적 상황을 버텨내기 위해서 조직이 필요함을 절감했고 현장에 침투하여 일차적으로 뿌리 조직을 갖추기 위해서 노력했다.

> 본래 그의 계획은 다음해 봄까지 충분히 사람을 사귄 후에 임금인상 시기에 맞춰 임투를 하는 과정에서 좋은 노동자들을 한데 조직하지는 것이었다. (『파업』, 42쪽)

홍기는 대영철강에서 활동하는 학출 노동자이다.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노동자들의 연대를 도모하여 노동운동을 할 목적으로 현장으로 왔다. 거대한 자본주의 체제하에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노동자들의 연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홍기는 생각했다. 그 중 '좋은 노동자'는 느슨한 조직을 강하게 응집시킬 수 있고 투쟁의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노동자들이다. 학출은 이렇게 권력과 자본가의 폭력에 맞서기 위해서 '선진노동자'가 필요했으며 이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큰 노력을 기울였다.

> "나도 홍기 말이 틀린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나같은 경우도 인천에서 데모한 기억으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하면 과장일까…… 어쨌거나 좋은 교훈이 된 것은 사실이야." 그러자 진영도 입을 열었다. "맞는 말이예요. 그렇게 자꾸 싸워야 노동자를 우습게 보지않고 그래야 우리가 활동하기도 좋지요. 그냥 훈련용이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싸움을 한 거라고 봐요." (『파업』, p. 131)

일제강점기 학생 운동과 4·19 학생 운동을 뒤 잇는 1980년대 학출은 노동자들이 함께 저항하는 연대를 만들어 내·외적 결속을 다질 수 있다고 생각했다. 노동자들이 느끼는 투쟁의 경험은 경험 그 자체에 대한 경험의 재생이다. 즉, 투쟁의 경험 축적은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와 숙달을 위한 '훈련용'이 아니라 노동운동을 위한 진정한 노동운동 그 자체인 것이다. 학출인 홍기와 진영은 투쟁의 경험이 그들을 현장에 서게 한 원동력이었음을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1980년대 학출이 등장하게 된 조건을 내·외적 상황을 바탕으로 분석했다. 내적으로는 학출이 지식인으로서의 부채의식이 발로하여 공장으로 투신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러한 문학적 형상화와 균열을 보이는 부분이 학출의 인터뷰였다. 당시 학출들은 부채의식과 함께 운동권 대학생들을 둘러싼 전반적인 현장 진출 분위기를 밝혔다. 외적으로는 1980년대에 이르러 정권과 권력, 자본주의 세력이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폭력의 문제이다. 재생된 폭력은 학출들이 현장에서 노동자 조직을 강화시키고 견고하게 다지는 원인이 된다.

이처럼 학출들은 그들을 둘러싼 여러 제약과 장애물이 있었지만 『파업』의 홍기와 정기준처럼 자신들의 투쟁 경험을 밑거름으로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노동운동을 진행했다. 학출의 등장은 이처럼 내·외적으로 감추어진 현실이 있으며 소설 속에 형상화되는 과정에서는 작가와 당대 학출을 보는 시각 때문에 일부 외면한 채 독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이를 통해 볼 때 학출의 활동은 당위적이지는 않지만 대학생 지식인의 민중 부채의식과 내적 갈등, 정권의 폭압이 빚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 이어질 내용은 학출의 현장 진출이 다양한 방식으로 각 구성원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진실성과 순결성이라는 기준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학출이 현장에 투신하는 현상이 어떻게 외부에 받아들여지는지 국가 권력과 노동자들에게 불온함과 타자성의 측면에서 확인하려고 한다. 즉, 학출의 노동운동 최종 목표가 운동의 진실성을 담보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학출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이 야기한 순결성 논쟁을 살펴보겠

다. 학출은 자신들을 규정하는 이중성을 타파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검열과 자기비판을 통해서 한계를 극복하려 했다. 『파업』에는 이처럼 학출 등장인물들이 학출에게 제기되는 여러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과 논리로 현실을 대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3. 진실성의 문제: 불온함과 타자성

노동운동은 우리 역사에서 개인의 저항보다는 집단 투쟁의 역사였다. 한 개인이 자본주의와 권력에 맞서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기 때문에 연대를 통한 투쟁이 보편화되었다. 투쟁의 동력에 생채기를 내기 위해 지배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의식적 이간질을 위해 노동자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이를 통해 노동운동 세력의 분열을 야기하고 제도적, 법적 기준을 근거로 노동자들을 탄압했다. 학출은 그 중심에 있었다. 권력은 노동자와 학출이 연대한 노동운동의 파급효과를 경계했다. 실천적 지식인과 현장 노동자의 행동성이 결합하면서 1980년대 노동운동은 권력과의 전면전에 나섰기 때문에 6월 항쟁과 같은 충돌이 가능했다. 권력은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연대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 사상적 불온함과 운동의 진정성을 문제 삼으며 학출을 타자화 시키려 끊임없이 노력했다.

『파업』에는 학출이 '노동'을 대하는 목적과 태도에 진실성을 규명하기 위한 논의들이 표출된다. 회사와 정부의 반공사상 프레임, 일반 노동자들의 사상논의에 대한 거부감, 위장취업에 대한 시선들이 학출을 불온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했음을 논하고 있다. 또 학출을 둘러싼 개인적 환경과 '생존노동'이라는 노동자성의 개인차를 드러냄으로써 학출과 노출의 간극을 표출시켰다. 작가 안재성

은 학출과 노출의 근본적인 차이를 외면하지 않고 그것을 작품의 전면에 드러냈다. 의식 속에 내재해 있지만 표현되기 불편한 학출의 정체성을 논했다는 점에서 『파업』은 학출의 존재를 공식화한 의미를 지닌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안재성은 자기체험을 통해서 노동운동의 진실성을 확신했다. 작가가 노동현장에 투신해서 경험한 현장성이 『파업』에 그대로 녹아 있기 때문에 노동의 진실성을 구체화해서 독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했다. 특히 『파업』에서 분신으로 희생된 김진영은 작가가 노동현장에서 함께한 동료를 모델로 했으며 작가의 이러한 경험은 노동자와 학출이 노동을 대하는 태도의 진실함과 간절함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 박성란: 『파업』이 1986년에 분신한 노동자 친구를 모델로 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친구였습니까? 그 소설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싶었습니까?
>
> 안재성: 지금은 아파트 단지가 되었지만, 구로역 앞에 있던 동일제강에 다닐 때 만난 동갑내기 친구 박영진의 이야기를 썼어요. 분신은 다른 공장에서 했지만, 두 공장 이야기를 하나로 엮었죠. 분신한 노동자들이 대개 그렇듯이, 박영진은 특이할 만큼 이타적이고 선하고 헌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나중에 탄광에 갔을 때도 동갑내기 친구 성완희가 분신하는 참담한 일을 겪었는데요, 그 두 친구가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파업』에 성환희는 나오지 않지만 굳이 투영할 것도 없이 같은 인물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요(……) 누가 분신을 했다고 하면 사람들은 대의명분도 있었겠지만 뭔가 개인적 사정이 있지 않았나 의심을 하곤 합니다. 제가 확언하건대 방영진과 성완희는 그런 것 전혀 없던, 모두에게 사랑받던 성실한 노동자였습니다. 오로지 다른 노동자들을 위해 스스로 목숨을 바친 겁니다. 분신 자체는 결코 옳은 방식이 아니고 저는 그에 절대 반대해요.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습니다.[29]

---

29) 안재성, 이설야, 박성란, 「증언과 기록문학-안재성 작가와의 좌담」, 인천

안재성은 '그들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생채기를 내려고 하는 '의심'을 단호하게 거부했다. 희생된 노동자들은 모두 '성실한 노동자'였을 뿐이었다. 그들이 특별한 존재이거나 목적성을 지닌 희생자들이 아니라 바로 현장에서 작가 옆에 함께한 동료였다. 희생자들은 역사에 기록되거나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겨질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작가는 평범한 사람인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소설에 새겨 넣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운동을 하는 노동자들은 특별히 운동과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다. 학출 역시 노동운동을 위해서 현장으로 나간 것은 비록 성실한 노동자로서의 삶을 마치기 위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함께 만들기 위한 평범한 목적성을 지닌 것이었다. 이것이 지배자에 의해 불온함과 타자성으로 경계되는 순간 학출의 노동현장 투신은 진실성의 심판을 받게 된다. 소설은 심판의 주체를 노골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부당함을 토로하고 있다.

1) 불온함: 이념 논쟁의 재생산

우리 사회는 분단 이후 좌우대립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이념 논쟁의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통제와 억압의 기재로 활용되는 사상검증은 노동운동 탄압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끊임없이 세뇌된 이념 논쟁은 그것을 상상하는 것조차 불안과 거부를 불러올 정도로 우리 사회 구성원들에게 피로감이 쌓여 있었다. 1980년대에 독재정권과 군부정치가 유지되는 속에 여전히 '불온함'은 한 인간을 판단하는 전적인 기준이 되었다.

학출은 1980년대 초 대학에서 서클활동과 학생운동을 하면서

작가회의, 『작가들』 제55호, 2015, pp. 175-176.

당시 비공식적으로 유입된 사회주의 이념을 학습하거나 사회과학 서적을 읽고 대중투쟁에 대한 의식을 성장시켰다. "학생운동을 하면서 사회주의에 동의"[30]했다는 노동운동가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당시 학출들은 사회주의 이념을 사회변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여겼다. 그리고 그 의식을 실천으로 옮기려는 학출들은 "지식인의 급진성"[31]을 경계하는 불편한 시선들에 의해 타자적 존재로 다루어졌다. 이런 경향을 모두 '사회주의=공산주의=체제 전복=종북'으로 규정하면서 지배 권력은 학출을 불온사상을 지닌 척결의 대상으로 규정했다. 위험한 사상을 지닌 학출에 대한 경계는 지배 권력과 회사뿐만 아니라 노동자 내부에서도 제기되었다. 결국 1980년대 사상검증 프레임은 이전 시기 한국사회를 관통하는 이념 대립의 굴레를 재생산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 측에서는 학출인 홍기와 정기준이 은밀하게 조직하여 교육하는 노동자 모임의 존재는 알지 못하지만 외부로 표출되는 노동자들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를 불온사상이 침투한 사건으로 규정했다.

> "아니요! 당장 구성해야 해! 놈들을 치는 방법은 오직 강력하게 두들기는 거요!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우리가 당해! 이건 어디까지나 전쟁이란 말이요, 전쟁! 타기업체들과 경쟁은 아무것도 아니오! 준동하는 용공분자를 분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쓰러지는 거요! 당신은 반도상사, YH 같은 대기업이 쓰러지는 걸 보지도 못 했소? 이건 어디까지나 피비린내 나는 대결이란 말이요, 대결!" (『파업』, p. 98)

---

30) 송영수, 「1980년대 부산지역노동운동」, 6월민주항쟁 기념 학술행사 자료집,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14, p. 14.

31) 오하나, 「80년대 노동운동 내 학생출신활동가를 둘러싼 비판 담론의 분석」, 역사문제연구소,『역사문제연구』제35호, 2016, pp. 572-580.

‘전쟁’으로까지 규정하고 노동자들의 변화 원인을 척결하기 위해서 회사는 ‘용공분자’라는 이념 대립의 프레임을 그대로 표면화시킨다. 한국사회에서 용공분자는 체제 전복을 시도하는 위험인자이자 절대 제거 대상이다. 국가의 존폐와 회사의 존폐를 동일시하면서 관리자는 용공분자를 색출해서 회사를 사수하는 것을 국가를 지키는 것으로 등치시켰다. 당시 1970년대 대표적인 노조투쟁과 민주노조 설립을 주도한 반도상사, YH상사 사례를 들면서 회사 내 변화를 막을 방법은 강력한 탄압 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 “그동안 회사 내에 불온 유인물이 살포되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해 온 데 주목하여 수사기관에 의뢰해 은밀히 내사를 해본 결과, 이번에 그 주모자와 동조세력의 전모를 색출하게 됐어요. 그자는 대학교에서 좌경불온 사상에 물들어 반체제 시위를 하가다 제적당하자 대영제강에 침투, 선량한 종업원을 선동하여 과격 파업을 유도하려다가 이번에 체포된 겁니다. 이는 최근 좌경용공세력들이 공장을 공산혁명의 기지화하려는……” 과장은 또박또박 살벌한 단어를 써가며 말을 계속했다. 간첩사건 발표 때나 쓰는 침투니 세뇌교육이나 포섭, 획책 등 섬찟한 단어들이 실내를 차갑게 휩쓸었다. (『파업』, p. 100)

사측은 불온사상 프레임을 현재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입하여 대영철강 노동자들에게 내재한 사상논쟁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을 조장했다. 한국사회는 사상, 이론, 이념 등 수십 년간 남북대립의 체제 불안 속에서 이들에 대한 언급조차 금기 시 된 폐쇄적 구조였다. ‘좌경불온 사상, 반체제 시위, 선동, 좌경용공세력, 공산혁명, 간첩’ 등 살벌하고 섬뜩한 표현들은 노동자들을 불안에 떨기에 충분했다. 대영제강 과장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당시 사회에서는 국가보안법에 의해서 간첩 및 용공분자로 사회에서 매장되기에 충분한 것들이었다. 노동자들은 이런 위협에 저항하고 싶지만 마음 내부에 꿈틀대는 근본적 두려움이 막아선다.

자본가의 억압은 노동자들의 절망과 두려움을 자극하고 이를 자각한 노동자들은 굴욕과 분노를 느끼며 결국 동지애를 통한 연대감을 형성하게 했다.[32] 하지만 두려움이 동지애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을 촉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한다. 즉, 심리적 두려움을 뛰어넘을 만한 충격이 노동자들에게 전해져야 한다. 점진적 충격은 동지회가 주도하는 노동자 교육이 될 수 있고 급진적 충격은 전면적 투쟁과 진영의 분신과 같은 동료 노동자의 희생에 기인한다. 회사나 관리자 역시 이를 잘 알기 때문에 노동자의 연대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념 대립의 프레임을 들이대서 불온한 학출을 노동자들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한다. 그래서『파업』에서 노동운동의 차단은 학출을 타자화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 "이것 봐, 김동연씨. 당신 정기준이가 어떤 놈인 줄 알어? 그 놈은 북괴 김일성이의 주체사상을 신봉하는 자야! 못 믿겠지만 사실이야. 당신이 그 놈들끼리 주고받는 글들을 보면 놀래 자빠질 걸? 이 사람 이거 벌써 물들어 버린 거 아냐?" 김일성이라니, 겁이 버럭 났다. 정기준은 몰라도 홍기는 경향이 있는 듯했으나 김일성이라니 느낌이 달랐다. (『파업』, p. 104)
>
> "이것 봐, 김동연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사실대로 말해주기만 하면 당신 같은 선의의 피해자는 구제해 줄 수 있어. 여기 과장님도 계시는데 외람된 말 같지만, 우리도 근로자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야. 경제개발에만 무리하게 치중하다 보니 불만이 생기는 건 당연한 일이야. 문제는 그러한 근로자들의 순수한 욕구를 악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야. 일부 멋모르고 책에서 공산주의를 배운 사람들이 공산주의의 실상을 모르고 환상을……" (『파업』, p. 105)

공산주의 프레임을 통해서 관리자는 공산주의를 척결해야 할 당

32) 조현일,「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 -김한수, 방현석, 정화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민족문학사연구』제54권, 2014, p. 86.

위성을 설파한다. 동연은 “김일성, 주체사상” 등 당시 아무도 입 밖으로 꺼낼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귓속으로 파고드는 상황에 당황하게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연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이미 반공주의 교육을 통해서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회사는 이런 심리전을 통해서 동연을 그들과는 다른 부류임을 안심시키면서 정보를 캐내려고 한다.

회사가 전제하고 있는 ‘국가=회사=가족’은 절대 깨어져서는 안 될 관계이다. 회사는 성립될 수 없는 등식을 노동자들의 두려움을 이용하여 합리화시키고 있다. 그 관계를 파탄으로 몰고 간 존재를 학출이라고 규정하여 국가, 가족, 회사를 전복시킬 위험요소를 제거할 필요성을 과장은 동연에게 설득한다. 이러한 공산주의 프레임은 결국 관리자와 노동자 모두 공산주의를 거부해야할 악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학출들 역시 노동현장에서 뿌리 뽑혀야할 존재로 규정했다.

그런데 과장과 동연의 대화에서 특이한 점은 문제의 본질인 노동운동에 대한 언급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노동운동의 본질이 과장도 언급하고 있지만 “경제개발에 따른 노동자들의 착취”에 있기 때문이다. 대영제강의 노동쟁의는 노동자들이 그동안 쌓여온 불만이 표출된 것이다. 즉, 그 물꼬를 터준 주체가 학출일 뿐이지 노동쟁의 자체는 당위성을 가진 노동자들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관리자는 이를 노동문제가 아닌 학출을 노동자들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에 몰두하였다. 노동문제는 학출을 노동 현장으로부터 색출하여 제거한 후 생각할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그래서 과장과 동연과의 대화에서 오로지 사상의 위험성만이 언급된 것이다. 노동자들이 노동의 문제로부터 생각이 멀어지도록 혼란을 줌으로써 회사는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노동문제를 조율할 수 있는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회사의 불온사상 프레임 구축의 극대화는 과장이 “북괴의 불온

삐라와 총알"(『파업』, 121쪽)이 철조망과 화장실에서 발견되었다고 언급한 대목이다. 회사는 사상검증을 노골화하면서 좌우의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 현재의 상황을 정리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간첩 활동의 공표를 택했다. 그것이 진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간첩'은 노동자들을 두렵게 하는 단어였다. 아무도 관련은 없지만 관련의 개연성이라도 있거나 만들어지는 순간 반체제 간첩이 되어 사회에서 격리될 두려움은 노동자들을 고민하게 한다. 이처럼 회사는 오로지 노동쟁의가 불온사상에 의한 문제임을 끝까지 고수하며 노동자들을 세뇌시켰다. 학출이 불온세력이 되어버리는 순간 노동현장에서 그들은 불편한 존재가 된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학출의 진정성은 연대의 필수조건이었다. 노동자들은 생존을 걸고 노동운동에 참여했다. 그들이 보통 초기에 투쟁 참여를 주저하는 이유는 불합리한 근로조건 속에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은 노동하는 것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동쟁의를 할 경우 그 마저도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노동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투쟁이 성공한다고 해도 회사의 집요한 회유나 경계를 벗어날 수 없으며 블랙리스트 때문에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노동자들과는 달리 학출들은 현장을 떠나면 그만이었다. 이렇듯 학출과 노출은 각각 처해 있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출이 현장에 들어오게 된 진정성은 노동자들에게는 동료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었다.

> 진용만은 조합장으로서 맹위를 떨쳤을 뿐만 아니라 옥중투쟁에서도 불같이 싸워 학생 출신들로부터 영우 같은 대접을 받았다. 그러나 노조를 할 때부터 종교인이나 학생들은 말로만 노동자를 지도하려고 하다가 언젠가는 기득권을 찾아 떠난다는 생각을 가져 학생들을 몹시 불신했다. (『파업』, p. 41)

"학생들 하는 짓이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그저 성과만 올리려고 서둘다가 노동자만 무더기로 해고시켜 놓고 그게 무슨 업적이라도 되는 양 떠벌이고 다니니. 그저 노동자는 어디 가나 희생만 당하지……" (『파업』, p. 155)

노동자들이 학출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첫 번째 조건은 노동자들에게 현장은 생존의 공간이지만 학출에게 현장은 경험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현실적 상황을 따져볼 때 학출이 평생을 현장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상상하기 어렵다. 노동자들도 이 점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장활동의 유한성과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은 학출의 타고난 환경이라 할지라도 현장으로 투신한 목적이 노동자에 있지 않고 노동운동의 경력이나 기득권으로 돌아서는 과정에 있는 경우를 노동자들은 경계했다.

"내가 걱정하는 건 학생 출신들이 너무 조급하다는 거네. 준비도 없이, 심지어 들어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싸움부터 걸어 쫓겨나고는 독재가 어쩝네 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생각만 하니 되는 것이 뭐가 있겠나? 어디 그뿐이야? 말로만 노동해방 외치지 실제로는 노동자를 발톱 밑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 게 그네들이야. 자기네들까리 패를 갈라 싸우고 앉아서 서로 자기 조직을 과시할려고 노동자 끌어들이기에 바쁘지. 공장생활 몇 달 해보고 운동가입네 자처하면서 노동자를 지도나 하려 들고 말야. 심지어는 같은 공장에 들어간 학생끼리 서로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상대방을 회사에 밀고한 일도 있었다네. 그게 미친 놈들이지, 미친 놈이 따로 있나?" (『파업』, p. 155)

또 하나 학출의 진정성에 의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 학출 내부의 갈등이다. 노동현장으로 들어온 이상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을 위한 운동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학출들 사이에 서로의 노선 대립과 투쟁 방법의 시각차 때문에 자본가와 권력자를 향해야 할 화살이 상대 학출을 향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학생운

동이 와해된 원인 또한 노선의 대립 때문이다.『파업』에서는 정기준과 홍기와의 갈등이 이를 묘사하고 있다. 다행히 소설에서 두 학출의 대립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고 적절하게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갈등을 봉합되었다. 현실에서는 각 노선의 간극을 좁히기가 매우 어렵지만 작가는 소설 속 두 학출을 대면시켜 합의를 이끌어냄으로써 노동운동의 동력을 유지시키고 있다. 이것은 작가가 학출로서 체험한 문제적 상황의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2) 타자성: 노동자와는 다른 학출 노동자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 노동, 가난을 대물림해서 살아가는 계층을 생각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랬듯 그들은 어린 시절부터 가난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들이 증오하는 가난은 그들을 순종적인 노동자를 만들었다. 노동자의 굴레를 벗어나고 싶지만 그들에게 공장은 생존을 위한 선택지가 없는 부득불의 선택이었다.

> 상섭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밝았던 표정에 어느덧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공포에 질려 사표를 쓰고 나온 지 어언 6년, 목숨까지 나눌 듯 함께 하던 동료들을 떠나 혼자 숨어 살아 온 외로운 세월이었다. 취직이 안되 근 1년을 놀다가 겨우 들어온 곳이 대영제강, 어용노조조차 없는 대영의 불법부당한 행위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였으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끽소리 않고 살아 왔다."(『파업』, p. 41)

상섭은 이전에 노조활동을 하다가 회사에서 나온 후 블랙리스트에 올라 한동안 다른 회사에 취업이 전혀 되지 않았다. 상섭과 같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에게 취업은 생존의 도구였으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한 보루였다. 그러다보니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투쟁과

순응의 선택의 기로에 선 순간 자본가와 권력에 굴복하는 경우가 많다. 파업이나 투쟁 이후 자신과 가족에 가해질 생활의 고통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투사가 되기 이전에 한 가족의 가장이었음을 무시할 수 없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에게는 노동운동은 대안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절충지대를 마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애초 프롤레타리아가 "셈-바깥을 가리키는 이름, 내쫓긴 자(outcast)의 이름"[33] 을 의미한 바와 같이 그들의 선택은 경계의 편입 또는 거부를 결정하는 생존을 위한 중요한 결정이었다.

반면에 학출들은 현장이 아니라도 그들을 받아주는 돌아갈 곳이 있다.

> 오히려 홍기의 생활이 걱정되었다. 그는 근심스럽게 물었다. "회사를 관두면 생계는 당장 어떻게 꾸려나가나? 부인이 임신중이라면서?" 홍기는 무심결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걱정 마세요. 다 방법이 있겠죠." "그래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상섭은 반문하면서 어쩐지 조금 씁쓸한 기분이 들었다. 대학 다닌 사람은 역시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었다." (『파업』, p. 82)

노동자들은 공장을 그만둔다는 것이 바로 생계의 문제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들에게 공장과 노동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루였다. 하지만 학출인 홍기의 대답은 노동자인 상섭이 학출을 이질적 노동자로 생각하는 한 단면을 보여준다. 회사를 그만두는 것이 생계 문제로 직결되는 생각으로 이어진 상섭과는 달리 홍기가 "무심결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공장이 아니라도 돌아갈 곳, 먹고 살 길이 있다는 의식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상섭의 "씁쓸한 기분"은 노동자들이 학출의 진실성을 다시 한 번

33)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140쪽.

생각하게 한다. 노동자들은 자신의 전부를 걸고 노동문동에 뛰어들어야 하지만 학출들은 실패하더라도 재정비할 수 있는 완충지역 또는 중간지대가 존재했다. 이와 같은 차이들이 학출과 노동자들 간 이질성을 표출시킨다.

>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장 먹고 살 길이 깜깜하니 하는 말이여. 자네 같은 학사 출신들이야 그런 걱정 안 하고 사는 것 같네만은 우리네야 어디 그렁가? 사실 어저께 일자리를 보러 다녀 봤네. 안 되더구먼. 블랙리스트고 뭐고 이젠 나이 때문에라도 취업은 안 되더라고." (『파업』, p. 167)

위에 상섭의 말을 통해서도 "먹고 살 길"을 대하는 학출과 노동자의 태도 차이를 읽어낼 수 있다. 상섭에게 먹고 사는 것은 관념이 아니라 당장 눈앞에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학출인 기준은 상섭의 "그런 걱정"을 운동 동력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한다. 기준을 포함한 대다수의 중산층 출신의 학출들은 인간이 먹고 살아가는 것은 존재를 지속하는 관념적 범주의 문제로 이해한다. 그들에게 글자 그대로의 먹고 사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충족되어 있는 요건이기 때문이다. 극단의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신념이 학출들에게는 있다. 그들이 살아온 삶의 환경이 극단적 결핍에 까지는 거의 이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극단에 이른다 하더라도 학출들은 노동운동 이외에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가족, 학교 등 대안이 존재한다. 즉, 학출들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조금 '불편함'을 주는 부차적 문제인 것이다.

> "굼벵이는 아무리 기어봤자 굼벵이라 이 말이여. 학생들이야 본래 똑똑하겠다, 배운 것 많겠다, 아는 사람 많겠다, 그쯤되면 유명해지고 대우받겠지만 노동자는 아무리 고생해 봐야 말짱 헛물인 거여……" 그토록 건강한 웃음으로 넘치던 상섭의 얼굴에 패배의식이 야금야금

좀먹어 들어가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다. (『파업』, p. 167)

상섭은 노동자로서의 한계와 학출과의 차이를 자각한다. 그가 반복적으로 노동자와 학출이 처해 있는 현실의 간극을 표현한 것은 그만큼 노동자의 처지에 대한 인식과 함께 학출의 진실성에 대한 갈구의 표출이라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걸어야 할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으로 "유명해지고 대우받"을 가능성을 지닌 학출은 노동자들에게 우상이 아니라 진실성을 검증해야할 대상인 것이다. 기준이나 서술자의 시각에서 상섭은 "패배의식"에 절어있는 노동자의 단상으로 묘사된다. 이것은 노조운동을 그만둔 상섭의 핑계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학출 출신인 작가 역시 이 부분에 대해 노동자의 생각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단순히 묘사한 현상에 대한 관념적 인식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노동운동으로의 본격적인 투신은 목숨을 내 놓아야 할 만큼 극단을 택한 것이므로 학출 역시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야 겉으로의 연대가 아닌 신념으로 이루어진 내부적 결합이 가능하게 된다.

위장취업자에 대한 시선은 학출의 진정성에 혼란을 주기 위한 지배 권력이 횡포이다. 학출을 당시 공권력과 자본가들이 지칭하는 '위장취업자'는 글자 그대로 위장해서 취업한 사람이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핵심은 '무엇을 위장을 했으며, 왜 위장했는가?'하는 것이다. 노동법이 개정되면서 제3자 개입 금지가 매우 엄격하게 시행되었다. 학생, 단체 등과 노동자를 분리시켜 노동운동의 확대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정부는 끊임없이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을 활용해서 노동운동과 노조를 무력화시키려고 했다. 게다가 이념의 굴레를 덧씌워서 학출이 국가를 전복시키고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킬 잠재 세력으로 몰아버렸다. 대학생들이 노동 현장에 뛰어든 순간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처럼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현장으로 침투하여 목적한 바를 달성하기 때문에 지배자들은 이를 '위장'이라 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학출을 대하는 시선은 아래와 같이 지배자들이 학출을 타자화 시키려했던 '위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 제일 먼저 입을 연 것은 진영이었다. "저는 예상했어요. 요새 위장취업자가 얼마나 많게요? 형은 우리가 그렇게 쑥맥인줄 알았어요?" 그러자 동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 요즘 대학 나온 사람이 한둘인가? 요즘은 취업이 안 되지만 전에 들어온 사람 중엔 전문대 출신이 꽤 있었어." (『파업』, p. 81)
>
> "대영에서 아주 떠난다는 게 아니라 일단 회사만 그만두고 동제회와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교육에만 전념하겠다는 겁니다. 노조결성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만일 저의 신분이 드러나면 좌경침투니 뭐니 탄압의 명분만 주게 되니까 그 전에 나오겠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이상섭이 말했다. "아, 이 사람아, 요새 위장취업했다고 누가 빨갱이라 혀? 요새야 위장취업이라면 외려 대우받는 세상 아녀? 부귀영화 다 버리고 힘없는 노동자 위해 공장에 들어온 사람을 누가 뭐래? 당장 자네가 그만두면 엉망이 되요. 그만둘 필요가 뭐 있는가?" (『파업』, p. 82)

『파업』에서 노동자들은 학출들을 위장취업자로 여기지 않는다. 목적이 있다 해도 그 목적은 노동운동을 통해서 노조설립과 노동투쟁에 있기 때문에 노동자와 함께 할 세력임을 주지하고 있었다. 지배자들은 학출을 위장취업자라는 꼬리표와 함께 '빨갱이'라는 되돌릴 수 없는 타자로 몰아세웠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학출을 "부귀영화 다 버리고 힘없는 노동자를 위해 공장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다. 즉, 1980년대 후반 노동현장에서 위장취업자 논란은 지배 권력의 의도한 대로 노동 현장으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오히려 노동자들과 연대의 구심점이 되었다. 학출이 현장에 진출한 최종 목적이 무엇이든, 노동자로서의 지속성이 없다하여도 그들이 현장에 있는 동안은 노동자들의 동지로서 노동운동에 투신했

다. 이상섭을 비롯한 노동자들은 학출이 그들과 다름을 인식하고 있지만 타자화된 다름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동'을 위한 취업이지 '위장' 취업이 아니었던 것이다.

지금까지 3장에서는 학출의 현장 진출을 둘러싸고 진실성, 진정 성 논란을 일으킨 몇 가지 이슈를 분석했다. 학출에 대한 논란은 결국 학출이 이중적 존재라는 점에서 진실성을 검증받아야 노동자와 연대가 가능하며, 반대로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학출의 진실성을 왜곡해서 그 연대를 끊어야 그들을 타자화시켜 노동운동에서 도태되게 할 수 있었다. 지배권력과 자본가들은 불온사상과 반공사상 프레임을 대입하여 일반 노동자들의 심리적 불편함과 두려움을 야기했다. 이들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이성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 사상문제는 가장 극단적으로 대상을 타자화시킬 수 있으며 외면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파업』에도 끊임없이 사상공작을 통해서 학출을 몰아내려했지만 점차 1980년대는 이념논쟁의 견고한 틀이 조금씩 균열되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바로 학출이 현장에 진출한 목적이 단순히 사상적 측면이 아니라 노동자의 주권을 되찾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위장취업자로 몰아간 정부의 대응 역시 사상과 목적의 불온함을 문제제기했다.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도 학출의 진실성은 연대의 필수조건이었다. 현장에서 학출에 대한 노동자들의 시선은 복합적이었다. 대부분의 학출들은 노동자와는 달리 중산 계급 출신으로 생활에 결핍을 느끼지 못한 계층이었으며 노동 현장에서 벗어나도 그들이 살아 갈 방도가 존재했다. 노동이 유일한 생존의 도구였던 노동자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학출을 향한 노동자의 시선은 영원한 노동자이거나 노동에 대한 절박함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학출의 활동과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

하 게 된다. 학출은 영원한 노동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노동 운동의 동료로서 노동자들은 인식하게 된다. 이렇듯 지배 권력과 자본가에 의해 왜곡된 학출에 대한 이중적 시선은 노동자들의 자각과 이해를 통해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연대하면서 해소된다. 학출의 진실성은 결국 끊임없이 타자화하려는 권력과 노동자들의 믿음이 충돌하여 학출에 내재한 노동의 진정성을 추출했다고 할 수 있다.

4. 순결성의 문제: 학출의 자기검열과 자아비판

1980년대로 한정지어 학출의 활동을 고찰해 보면 매우 짧은 역사 속에서 순식간에 노동운동의 중심에 있다가 사라진 존재들이다. 대학 운동권 학생들의 사회 참여 분위기 속에 1980년대 초반 급속하게 노동 현장 투입이 진행되다가 신군부가 정권 획득 후 노동계 유화 정책을 취하면서 오히려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그리고 학출들이 공장에 침투하여 의식회된 노동자 교육에 집중하여 그 효과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노동권 및 법률을 학습한 노동자들의 의식이 전체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학출의 역할이 의식화된 노동자로 대체된다. 이것은 노동의 본질이 노동자에 있다는 측면에서 예견된 진행이었다. 학출은 노동자의 동료가 될 수는 있어도 노동자와 일체화 될 수는 없었다. 1986년 6월 항쟁에서 노동자들은 노조를 결성하고 집단 대응에 나서는 등 노동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은 맡게 되었다.

학출은 이런 존재의 위기를 탈피하고 노동현장에서 자신들의 역할과 존재 가치를 보장 받기 위해서 노력했다. 바로 '자기 검열'과 '자아비판'을 통해 '노동 순결성'을 확보하려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노력은 '노동자 되기'(노동자임을 확인 받는 과정)와 '지식

인 지우기'(지식인 되기를 거부하는 과정)로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수많은 학출들이 공장으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노동자들은 학출을 순수한 노동자로 보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학출을 자신들을 도와주는 조력자로 여기거나 다른 목적을 가지고 노동 현장으로 온 순결하지 않은 노동자로 인식했다.

1) 순결하지 않은 노동자

학출의 노동자성[34]이 순결, 순수하지 않다는 것이 목적의 타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순수성의 결여는 다름과 등가를 이룬다. 이러한 다름은 학출 내부의 분열과 학출에 대한 노동자들의 인식을 통해서 드러난다. 학출 내부의 분열은 학생운동의 방향성에 대한 각 분파의 시각 차이 때문에 노동현장에서도 이를 적용하는 문제를 두고 다른 방식으로 대립하는 경우가 생겨났다. 『파업』에서도 학출인 두 인물 기준과 홍기는 서로 다른 노선 때문에 대립을 한다. 이 둘이 벌이는 운동노선에 대한 논쟁은 우열이나 중요성을 떠나서 노동운동의 목적이 노동자를 위한 운동인지, 운동을 위한 운동인지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또한 노동자들은 학출을 자신들과 다른 존재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 그러나 홍기는 달랐다. "그건 노동조합이 무언가하는 문제가 아닐까? 나는 노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는 생각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노조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훈련되는 거라

34) 노동자성은 각 시대별로 다르다. 중세가 무너지고 신분제가 철폐된 사회에서 근대 이후 자본주의 체제 발전으로 양산된 것이 노동자이다. 노동자는 자본가가 마련해 놓은 생산 도구를 활용하여 생산물을 생산해내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다. 우리사회에서 1970-1980년대 노동자는 주로 공장에서 생산직 일을 하는 이들을 지칭하며 이 시기의 노동자성은 이들의 삶을 반영한다.

고 생각해. 어려움도 있겠고 실패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 단련되는 것이지, 완벽하게 준비해서 어느날 갑자기 노조를 만들어 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노조자체가 우리 운동의 목표는 아니잖아?"
"왜요? 노조는 변혁운동의 핵심이예요. 합법적이든 아니든 노조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당장에 합법성을 쟁취할 주체역량이 없으면 더 많은 준비를 해서 비합법 노조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단순히 투쟁 훈련을 위해 역량에 맞지 않는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선도투쟁적 발상이 아닙니까? 형님이 지금까지 동지회를 정치적 가두시위에 동원한 것이나 지역과 회사내에 유인물 작업을 해온 것이나 모두 선도투쟁론의 영향이라고 봐요." (『파업』, p. 113)

위의 홍기와 기준의 대화는 당시 대표적인 학생운동 분파들의 운동방식의 대립을 그대로 노동 현장의 학출로 옮겨왔음을 보여준다. 홍기와 기준은 서로 운동에 대한 시각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기준은 정치적 투쟁, 전위조직이 필요, 홍기는 전위보다는 현장 조직과 경제적 투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노조의 설립과 노동자들의 정치의식화 방식을 두고 벌이는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은 차후 노동운동의 과정을 보면 서로에 영향을 주며 함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 즉, 노동운동의 목표는 '변혁'으로 동일하다. 사회변혁, 자본변혁, 구조변혁을 위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의 차이이지 선후를 구분할 것이 아니다. 결국 이것은 노동자들의 손에 달려있다. 1980년대 후반이 되면 의식화된 노동자들의 노동투쟁 역량이 성장함에 따라 노조 결성 및 투쟁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현장에서 학출의 역할은 축소되었다.

노동자들에게 홍기와 기준의 대화는 학출에 대한 거리감을 유발한다.

그때 듣고만 있던 영춘이 다소 퉁명스레 물었다. "야, 애길 하려면 같이 하자고! 알은 뭐고, 전위는 뭐야? 학생들끼리 쓰는 말인가? 우리

> 도 알아 듣게 좀 해줘!" 기준이 겸연쩍게 웃었다. "미안해요. 떠들다 보니까……별 얘기 아네요. 나중에 시간을 내서 같이 얘기하지요." 그러자 상섭이 말했다. 그의 말투 역시 조금은 퉁명스러웠다. (『파업』, p. 115)
>
> 영준이 신경질적으로 말했다. "야, 야. 잠이나 자자. 똑똑한 사람들끼리 싸우든지 말든지. 못배운 사람은 시키는대로 하면 될 거 아냐?" (『파업』, p. 116)
>
> "야, 야, 시끄럽다야. 술이나 먹자니깐? 똑똑한 사람들끼리 싸우던지 말던지 나는 물라!" 영춘은 아예 외면해 버리고 술만 들어켰다. 상섭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고 묵묵히 듣고 (『파업』, p. 132)

영준이 "학생들끼리 쓰는 말"을 궁금해 하자 기준은 "별 얘기"가 아니라고 하며 노동자들의 대화 참여를 막아버렸다. 기준의 언어 속에는 학출이 생각하는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드러난다. 이렇게 무의식에 드러나는 학출의 노동자 배제의식은 반대로 노동자들에게 학출과의 거리감을 심화시키며 결국 학출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하는 기제로 작용을 한다.

함께 하는 투쟁의 공간에서 기준과 홍기가 사용한 용어들이 노동자들에게는 학출들의 용어로 인식되었으며 "똑똑한 사람"들의 대화에 노동자들은 "못배운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결국 학출들의 대화는 노동자들과 학출들 사이에 경계를 만들어 서로 타자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이질성을 감각하는 것은 문제에 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이어진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한다는 영준의 말은 학출과 노동자를 평등한 지위가 아닌 상하 관계로 전락시킨다. 이는 동료로서 연대해야 할 두 집단의 관계가 종속의 관계로 변질됨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학출인 기준과 홍기가 적극적으로 노동자들에게 다가서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 의식에 남아 있는 학출과 노동자의 차이를 노출한 결과이다.

2) 순결한 노동자 되기: 학출 자기 부정과 비판

학출들은 노동 현장에 침투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존 재를 드러내지 않는다. 노동 운동에 대한 탄압을 피하고 자신이 속한 집단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노동자들에게 거리감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 학출들은 자신의 출신을 속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에 대해 노동자들은 학출의 존재성에 대해 다름을 느끼게 된다.

> 나도 깜빡 속았지 뭐예요. 어쩐지 아는 게 너무 많더라 했지요. 노동자 한 사람 건졌다 했더니만 알고보니 진짜 전문가였으니……어쨌든 기왕에 이렇게 된 거 열심히 같이 싸워야죠." (『파업』, p. 112)
>
> 상섭은 말했으나 조금 뜹뜨름한 기분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말끝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노동자임을 강조하던 기준이 학생이었다는 사실에 서운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파업』, p. 112)

진영의 말을 통해서 볼 때 노동자은 현장 노동운동에 뛰어난 노동자를 두는 것과 학출이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결로 인식함을 알 수 있다. 진영의 생각은 당시 노동자들이 학출을 동료로는 인식하지만 노동자 자체로 인정하고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노동자인 진영의 말에는 노동자가 노동운동에서 순수한 노동자의 힘으로 노조를 결성하고 투쟁을 해나가려는 욕구가 담겨 있다. 결국 노동운동은 노동자가 주체가 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로서 학출보다는 의식화된 노동자가 노동운동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었다. 즉, 노동운동의 순수성은 노동운동의 지속성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순수한 노동자 운동을 갈구했다. 학출들은 이런 노동운동의 내부적인 환경 속에서 그들이 지식인, 전문가로 인식되기 보다는 노동자로 동화될 수 있기를 바랐다. 즉, 순결한 노동자 그 자체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두 번째 인용문에서 상섭의 서운함은 두 가지를 의미한다. 학출 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노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 노동자들조차 끝까지 속였다는 배신감과 학출들이 노동자임을 강조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다. 상섭이 진영과 비슷한 감정을 느낀 이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80년대 후반 6월 대투쟁 이전부터 이미 노동자 스스로 노동운동을 개척하고 투쟁의 수위를 높여가면서 노동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운동의 최종 목표인 노동해방은 노동자 스스로 노동운동을 통해서 달성해야할 과제임을 노동자들은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손으로 사회와 노동의 변혁을 이룰 수 있기를 내심 바랐기 때문에 기준이 학생이었다는 것은 아쉬움이 된다.

노동자들이 학출을 자신들과 동일시하지 못한 이유는『파업』의 홍기와 기준과 같은 학출들에게 은연중에, 무의식적으로 내재한 인식들을 학출들이 노동자들과의 대화, 투쟁 속에서 불연속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다. 또 학출들의 배경(개인적 생활수준과 가족관계, 지식인으로서의 대안들)이 노동자들과는 다름을 인식하고 여기서 불신이 생기게 되었다.

> 다만 이론을 앞세우다 보니 잘못하는 것이 많다는 거야. 어쨌거나 우린 몸과 마음으로 노동운동을 배웠지만 그 친구들은 책에서 운동을 배우다 보니 모든 것을 이론의 자로 재려 하고 거기에 안 맞으면 피를 나눈 동지까지 버리니 하는 말이네. (『파업』, p. 156)

노동자들에게 학출에 대한 이미지는 이론과 현실의 괴리, 운동노선의 충돌로 인한 동지애의 부재 등으로 인식된다. 노동운동의 힘은 이탈하지 않고 연대하는 투철한 동지애에서 나온다. 그런데 노동자들에게 학출의 동지애가 문제 있다는 인식은 그들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된다.

우리 노동운동사에서 노동자들의 연대는 안타깝지만 동료 노동자의 죽음이 구심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전태일의 평화시장 분신이 노동자들의 연대를 불꽃같이 일으켰고, 작가 안재성은 실제 동료 노동자의 죽음이 노동운동에 대한 적극적 인식의 계기가 되었으며, 그런 작가의식이 이어져 『파업』에서 진영의 분신으로 오버랩 되었다. 이처럼 노동자들의 연대는 구심점이 되는 희생이 존재한다. 죽음을 불사한 동료의 희생은 끈끈한 동지애와 목표 달성의 확고한 의지를 촉발한다. 하지만 학출들은 이런 동지애에서 빗겨서 있다. 학출들 역시 이와 같이 자신들의 약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부정이나 자기비판을 통해서 순수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이다.

학출들은 노동자들의 힘과 자신들의 한계를 이미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파업』에서 서술자의 분석은 명료했다. 노동자들의 동지애는 사회변혁의 가능태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반면 지식인에 대한 비판과 부정은 여전히 이론에 집착한 채로 노선의 대립에 사로잡힌 진정한 노동운동과 유리된 학출의 단상으로 표현되었다.

> 진정으로 올바른 입장에서 단합을 주장한 것은 대개 노동자 출신활동가들이었다. 동지의 잘못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쾌히 지적하고 솔직하게 비판하면서도 그 바탕에는 어떻게든지 함께 하려는 끈끈한 애정과 이해가 깔려 있었다. 방안에 들어박혀 앉아 레닌 식의 날카로운 풍자와 비아냥을 흉내낸 문건이나 양산하여 반대자를 궁지에 몰아넣기에 급급한 많은 학생출신들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노동자 출신이라고 모두 훌륭한 것은 아니었으나 이론에 대한 집착 이전에 인간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활동한다는 점에서, 그러면서도 잘못된 이론가들보다는 몇 배나 더 헌신적이고 실제 성과도 훨씬 크다는 점에서 귀감이 되었다. (『파업』, p. 141)

1980년대 초반 학출이 본격적으로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기 시

작했을 때 노동운동에 대한 열정과 의식은 노선의 분열을 뛰어넘었지만 학출의 존재가 흔들리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이 되면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들 내부에서 노선 투쟁에 대한 집착은 더욱 심해진다. 방향성 또한 노동운동에서 사회체제 변혁 운동으로 변화하면서 노동 현장에서 멀어지게 되었다. 이는 물론 그 사이 노동자들의 교육과 의식화, 투쟁의 경험이 축적되어 노동운동의 역량이 학출의 도움이 필요 없을 정도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가능한 점도 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학출이 노동현장에서 '학출' 노동자가 아닌 학출 '노동자'되기에 실패한 결과에 있다. 즉, 노동에 방점이 찍혀야 할 학출의 가치가 노선 투쟁에 매몰되면서 학출은 노동자들과 유리되고 도태되어 버렸다. 학출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고 있었을까?

> 날 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별 볼 일 없이 당하고만 살아온 노동자들이 수백여 경찰과 깡패들을 물리쳤다는 게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았다. 오로지 홍기만이 믿어 의심치않던 노동자의 혁명성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었다. (『파업』, p. 277)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노동 운동과 저항은 결국 노동자의 손으로 이룰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학출과 노출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출들은 노동 현장으로 뛰어들면서 '노동자의 혁명성'을 분출시키기 위해 전위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역할이라 이미 한정했을지 모른다. 노동혁명 뒤에는 사회 변혁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그들은 품고 있었을 것이다. 학출들은 자신들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수없이 내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노동자의 순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나 노선 투쟁과 배타적 의식 등 자기 부정과 자기비판을 감행하지만 학출은 여전히 순수한 노동자 되기는 성취하지 못했다.

"그토록 많은 책을 읽고 현장에 뛰어들어 증명해 보려 해도 안

되던 일을 지금 노동자 스스로 증명"(『파업』, 289쪽)할 수 있는 원동력은 순수한 노동자 의식이다. 순결성의 문제는 그것이 결여되어 있던 학출들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같은 요소였다. 노동자와 합일하기 위해서 학출은 학출이 아닌 아무런 '수식 없는 노동자'로 인정받고 싶었다. 이를 위해서 지식인으로서의 자기 존재 부정과 지식인의 문제를 스스로 비판하기도 했지만 그들의 내·외적 환경은 그들을 여전히 '위장' 노동자로 인식하였다. 지배자의 입장에서는 노동문제에 개입하여 노동자와 연대를 통해서 투쟁하려는 불순한 세력으로,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순수한 목적과 의지와는 괴리감이 있는 학출로 인식하면서 그들은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 현장에서 조금씩 멀어지게 되었다.

5. 나가며

본 논문은 노동운동의 한 축이었던 학출이 1980년대 후반 사라지게 된 시대적 현상에 대해 안재성의 『파업』을 통해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학출의 내·외부를 고찰하고 있다. 학출 작가에 의해 창작된 소설 속 학출은 지식인으로서 당대 노동운동에 투신했던 자신의 존재를 되돌아보고 노동운동에 대한 욕망을 표출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그리고 1980년대 후반까지 학출의 잔상은 여전히 유효한 현재진행형이었기 때문에 지식인 노동자 스스로 그들의 존재를 규명할 필요가 있었다. 학출은 각 산업 현장에서 소모임을 조직하여 노동자들을 교육시켜 선진노동자를 양성하여 향후 노조와 노동투쟁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노동자를 배출해 낸 산파 역할도 했다.

2장에서는 1980년대 학출이 폭발적으로 출현하게 된 안팎의 조건들을 분석했다. 학출 내부에서는 지식인의 부채의식이 그들을

현장으로 향하도록 했다. 전태일의 분신을 계기로 사회 변혁을 논하면서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자신을 반성하면서 그 부채의식을 바탕으로 노동운동에 뛰어들게 되었다. 학출이 증가한 사회적 조건은 독재정권 몰락 후 또다시 권력이 재생산한 폭력에 민중이 희생된 광주민주항쟁을 목격하고 연대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3장, 4장에서는 이렇게 현장으로 뛰어든 학출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에 대한 분석이다. 3장은 학출이 현장으로 진출한 목적에 대해 진실성의 관점에서 학출의 문학적 형상화를 다루고 있다. 권력과 지배층은 학출을 위장취업자, 불순분자 등 이념의 프레임을 대입하여 노동자로부터 타자화 시키려는 시도를 했다. 노동자들은 그들과는 다른 환경에서 있는 학출이 왜 노동 현장으로 달려왔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은연 중에 드러나는 학출과 노동자의 괴리는 학출을 타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했다.

4장에서는 학출들이 노동운동에서 지닌 존재론적 한계와 노동주체와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자기검열과 자아비판을 통해 노동주체로서의 순결성을 확인받고자 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학출들은 자신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지만 그들도 노동투쟁의 중심 역할을 하는 노동자로 인정받기를 원했다. 하지만 학출의 역할이 점차 노동자들로 대체되면서 학출은 더 이상 노동운동의 전면에서 모습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후 학출들은 학교로 돌아가거나, 학생운동의 정치세력화로 인해 정치로 나아가거나, 시민운동, 노조집행부 등으로 방향을 전환했다.

노동운동사에서 한국의 학출은 매우 독특한 지점이다. 일반적으로 이론적 영역에 머물러 있는 지식인들이 노동운동의 전면에 등장하여 노동자가 되어 투쟁하는 것은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 연대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중적 존재인 학출들은 그들 스스로 자신의 존재 지점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학출의 노동

자 되기는 성공하지 못했다. 그들 스스로의 자기인식과 노동자들의 학출에 대한 인식 모두 노동보다는 지식인에 방점이 찍힌 결과였다. 이처럼 안재성의 『파업』에 형상화된 학출은 학출의 현장 투입 당위성, 목표의식 등에서 현실과는 차이를 보이지만 1980년대 후반 학출의 소멸을 직접 경험하고 목격한 작가가 학출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노동문학은 생산, 논의, 향유 모두 노동자가 주체로 나설 때 현장의 결을 한층 살릴 수 있다. 지금도 여전히 노동현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넘쳐흐르며 문학적으로 형상화되고 있다. 노동문학의 봄은 언제 오는가?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안재성, 『제2회 전태일문학상 수상작품집1 파업』, 세계, 1989.
유경순,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1 : 학출활동가와 변혁운동』, 봄날의박씨, 2015.
_____, 『1980년대, 변혁의 시간 전환의 기록2 : 학출활동가들의 삶 이야기』, 봄날의박씨, 2015.
조영래, 『전태일 평전』, 돌베개, 1983.

2. 논문

강희원, 「이른바 '정치파업'과 우리 노동헌법」, 서울대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제28집, 2010, pp. 145-230.
박규준, 「한국 현대 노동소설 연구 - 이데올로기와 성장서사 -」, 대구대 박사논문, 2008.
_____, 「안재성의 파업 연구 - 내포적 총체성의 결핍과 인물의 의미 관계를 중심으로 -」, 한민족어문학회, 『한민족어문학』 제66권, 2014, pp. 499-530.
박수빈, 「1980년대 노동문학(연구)의 정치성」, 상허학회, 『상허학보』 제37집,

2013, pp. 163–195.
배하은, 「1980년대 문학의 수행성 연구 – 양식과 미학을 중심으로 –」, 서울대 박사논문, 2017.
송영수, 「1980년대 부산지역노동운동」, 6월민주항쟁 기념 학술행사 자료집, 민주주의사회연구소, 2014.
안재성 · 이설야 · 박성란, 「증언과 기록문학 – 안재성 작가와의 좌담」, 인천작가회의, 『작가들』 제55호, 2015, pp. 169–224.
오하나, 「1980년대 한국의 노동운동과 학생출신노동자」, 서울대 석사논문, 2006.
_____, 「80년대 노동운동 내 학생출신활동가를 둘러싼 비판 담론의 분석」, 역사문제연구소, 『역사문제연구』 제35호, 2016, pp. 557–600.
유경순, 「1980년대 변혁적 노동운동의 형성과 분화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2011.
장수익, 「1980~90년대 노동소설 연구」, 한국문학회, 『한국문학논총』 제75집, 2 17, pp. 5–31.
전승주, 「1980년대 문학(운동)론에 대한 반성적 고찰」, 민족문학사학회 · 민족문학사연구소, 『민족문학사연구』 제53호, 2013, pp. 390~391.
조현일, 「노동소설과 정념, 그리고 민주주의 – 김한수, 방현석, 정화진의 소설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학회, 『민족문학사연구』 제54권, 2014, pp. 81–109.

3. 단행본

구해근, 『한국 노동계급의 형성』, 창작과비평사, 2002.
김원 외 편, 『민주노조, 노학연대 그리고 변혁』,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7.
김지하, 「민중문학의 형식문제」, 자유실천문인협의회, 『문학의 자유와 실천을 위하여』 제3집, 이삭, 1985.
박종운, 「학생운동의 변혁운동으로서의 정립」, 『월간 사회와 사상 80년대 사회운동논쟁』, 한길사, 1989.
오하나, 『학출 80년대, 공장으로 간 대학생들』, 이매진, 2010.
오현석, 「응축된 침묵의 분출에 무관심한 그들 – 노동문학은 누구의 것인가?」, 『1980년대를 읽다: 노동과 표현의 문제』, 해석과판단 제8집, 글누림, 2015.
채구묵, 「1980년대 민주노동운동에서 학생 출신 지식인의 역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2007.
수전 손택, 이재원 옮김, 『타인의 고통』, 이후, 2010.
조르조 아감벤, 박진우 옮김, 『호모 사케르』, 새물결, 2008.
_____, 김항 옮김, 『예외상태』, 새물결, 2009.

자크 랑시에르, 양창렬 옮김, 『정치적인 것의 가장자리에서』, 길, 2008.
_____, 유재홍 옮김, 『문학의 정치』, 인간사랑, 2011.

(**투고일**: 2018. 4. 30 **심사완료일**: 2018. 6. 18 **게재확정일**: 2018. 6. 21)

이름: 오현석
소속: 부산대학교 국어교육과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2 부산대학교 제2사범관
전자우편: ohssek@hanmail.net

[Abstract]

A Study on Literary Configuration of Hakchul(student-turned-laborers) in the First Full-length Labor Novel An Jae-Seong's A Strike

Oh, Hyoun-Suk

This paper examines the literary figuration of Hakchul in the Ahn Jae-sung's novel 『A Strike』. Hakchul played a key role in educating and organizing workers in the 1980s labor struggle. The reason they came to the workplace was because of the sense of shame that they did not fulfill their roles as intellectuals. Ahn Jae-sung wrote 『A Strike』 based on his experience. So this novel describes the labor movement surrounding Hakchul in a very realistic way. The ruling power drove Hakchul as an rebellious element in order to prevent the strong solidarity between Hakchul and workers. Workers looked on Hakchul with a jaundiced eye because of different living conditions. Also, the ontological limitation of Hakchul as a dual being of intellectuals and workers has created a problem of purity. They attempted to break the existence of intellectuals through self-denial and criticism. But overcoming a dual being was not a simple problem that could be solved by self-denial. In the end, Hakchul was not recognized as a complete worker and diminished the influence in the late 1980s. In this way, it can be seen that there are various points of discussion about the Hakchul through the literary figuration in the novel 『A strike』 behind the evaluation of the leading activist of the existing labor movement.

Key words: Labor Litulacture, Lavol Novel, An Jae-Seong, A Strike, Labor Movement, Atudent Moement, Hakchul(student-turned-laborers), Labor, Capitalism, 5·18 Gwangju Uprising, Chun Tae-Il, 1980s, Capitalist, Intellectual, College Student, Disguised Employment, Socialism, Struggle